

(첨부)

투자권유준칙

제정 : 2011.0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별지2]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

니하더라도 면담·질문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별지1] 투자자정보 확인서

- ② 임직원등은 제①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 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별지3]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1]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①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5] 적합성판단방식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별지2]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①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5] 적합성판단방식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등급 및 [별지4]의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별지 3]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제11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조 제①항에 따른 [별지5] 적합성판단방식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지 6] 적합성판단방식(파생상품등)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라.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마.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13조(설명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①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①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⑤ 임직원등은 제①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①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3.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 4.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5.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도 분류

제15조(집합투자증권의 위험도 분류)

- ① 투자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도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도는 [별지4]의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다.
- ②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4]의 집합투자증권 위험도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투자자문대상의 범위 및 투자일임재산의 투자대상 범위를 정한다.
- ③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①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

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8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 ②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

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⑧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 ⑨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⑩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⑪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①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①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①호 및 제②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②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문	비고
재산상황	1.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1) 10% 이하 2) 30% 이하 3) 50% 이하 4) 70% 이하 5) 70% 초과	
	2. 여유자금 보유여부 1) 3개월분 미만 2) 3개월분~6개월분 3) 6개월분~9개월분 4) 9개월분~12개월분 5) 12개월분 초과	
	3. 월소득 현황 1) 50만원 이하 2) 1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5) 500만원 초과	
	4. 총 자산규모(순자산) 1) 1억이하 2) 5억 이하 3) 10억 이하 4) 50억 이하 5) 50억 초과	
	5. 총 금융자산(부동산 제외) 중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가능한 비중 1) 10% 이하 2) 30% 이하 3) 50% 이하 4) 70% 이하 5) 70% 초과	

	<p>11.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p>1)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2)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3)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p> <p>12. 투자자금의 성격</p> <p>1) 생활필수자금 2) 특수목적 자금 마련 3) 여유자금</p>	
<p>금융 이해</p>	<p>13. 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p>1)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2)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3)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p>	
<p>연령</p>	<p>14. 투자자의 연령</p> <p><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이상~6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p>	
<p>취약투자자 여부</p>	<p>15.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p> <p>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 65세 이상 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 문맹자 등</p>	

투자자 성향 분류

제3방식	비고
<input type="checkbox"/> 위험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적극형 <input type="checkbox"/> 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안정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형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2]

[일반투자자]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p>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3]

[일반투자자]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귀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회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4]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기등급채권 등에 최대 3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 가능 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40% 초과 6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3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 가능 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4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마이어자산운용의 내
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 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채권, 이러
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
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
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④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 자산, 이러한 위
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
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
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
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6.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
험등급이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9. 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저축하
는 방식(적립식 방식)으로 저축하는 경우 위험등급이 하향될 수 있습니다.
10.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
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별지5]

적합성 판단 방식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후,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1) 투자자 답변의 점수화(scoring) 방법

[별지 1] 의 투자자 정보 항목 1.~15.항목(6, 9, 14, 15. 항목을 제외)에 대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1) ~ 5) 또는 1) ~ 3) 의 번호가 각 항목별로 취득한 투자자의 점수가 되고, 각 점수를 총합하여, $49 + 1(\text{기본점수}) = 50\text{점}$ 만점 (최저점수 : 12점, 최고점수 : 50점)

(2) 평가 점수에 의한 투자자 성향 분류

평가점수	투자자성향
15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형
20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안정성장형
25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성장형
30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적극형
30점 초과	<input type="checkbox"/> 위험선호형

(3) 투자자 성향별로 적합한 투자권유 대상 집합투자증권 등급

구 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중간위험 (3등급)	낮은위험 (4등급)	매우낮은위험 (5등급)
위험회피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성장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성장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형	투자권유불가				
위험선호형					

적합성 판단 방식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5]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정함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에 50%초과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에 50%초과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모든 파생상품등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모든 파생상품등	